



즉시 배포용: 2019년 7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고양이 발톱 제거술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Cuomo 주지사: "이 낡은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동물들이 이런 잔혹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더는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주, 미국 최초로 고양이 발톱 제거술을 금지해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고양이 발톱 제거술을 금지하는 법안(S.5532B/A.1303)에 서명하여, 뉴욕은 이 수술을 금지하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톱 제거술은 무력한 동물들에 신체 및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수술로, 오늘부로 금지됩니다. 이 낡은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동물들이 이런 잔혹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더는 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Michael Gianaris 상원 부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 발톱 제거술은 사람의 손가락 첫마디를 절단하는 것과 같이 잔혹한 수술이며 고양이의 삶에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상원 다수당(Senate majority)이 새로이 동물 복지에 역점을 두어 자랑스럽고 주지사께서 이 법안을 제정해 대단히 기쁩니다."

Linda B.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뉴욕주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고양이 발톱 제거술을 금지하였습니다. 발톱 제거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잔혹하며, 비용이 낮고 고통도 없는 대안도 많이 있어 지금 여기 뉴욕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 야만적인 수술을 허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뉴욕주의 고양이들과 고양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겐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뉴욕은 인도적인 주로 한층 뛰어올랐으며, 다른 주들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의 행보를 따르길 바랍니다."

발톱 절제술이라고도 하는 발톱 제거술은 앞발 발가락의 각 말단 뼈 전체 또는 대부분을 제거하고, 발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힘줄, 신경, 인대를 절단하여 극심하고 만성적인 통증과 기타 심각한 의학적 또는 행동 문제를 일으킵니다. 발톱을 제거한 후에는, 고양이가 걷는 자세와 무게를 신는 위치를 바꿔, 다리 관절과 척추에 염좌가

발생해 조기에 관절염이 발생하고 등과 관절에 장기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발톱은 삶의 다양한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등반과 균형 유지를 돕고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